

공업적 양계업으로 변신해야

오 세 정
한국가금학회장



국 재화시대에 양계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양계인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양계업을 천적으로 생각하며 사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창의적인 연구와 “하면 된다”는 정신적인 의식개혁이 있어야 하고, 정신혁명, 생활혁명, 기술혁명이 필요하다. 또 국제경쟁에 대비하여 상대의 장단점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며, 신속한 정보와 상대의 약점이나 결함을 정확히 탐지하여 대처해야 승리할 수 있다.

양계산물도 수입개방 위협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제경쟁에 앞서 국내업자와의 경쟁, 양계업 제약요인 제거 등이 더 큰 문제이다. 요즈음 인력난, 인건비 상승으로 사양관리가 30년 전

으로 후퇴한 감이 느껴진다. 아무리 좋은 품종, 좋은 사료, 근대화된 시설을 갖추었다해도 닭을 정성껏 관리하지 못하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능력저하로 생산원가는 가중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이제 양계인들도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탓으로 자인하며 각자 자성과 자각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양계산업에 있어서 생산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비자들도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고급영양식을 선호하고 있다. 과거 양계인들이 계산물을 생산해 놓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던 체제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닭고기와 계란을 생산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

농장에서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시설의 자동화,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상업적 양계업에서 공업적 양계로 변신을 하고, 닭에게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생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능력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농장 외적으로는 계열화나 협업경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괄체계를 갖추어 가며, 상호협력과 신의를 키워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양계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점은 불합리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다. 그동안 협회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계분처리 관련법, 농지전용·건축관계법 등 수많은 법적 제약요인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법적 제약요인은 수입개방이나 생산비 등을 거론하기 이전에 양계

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다같이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지 거의 대부분 양계인들은 제도개선을 위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양계업 발전

이전에 양계업 지속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다.

양계업 발전의 길은 특별한 기적은 없고 오직 생산능력을 상대보다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름길이며, 창조적인 연구와 실천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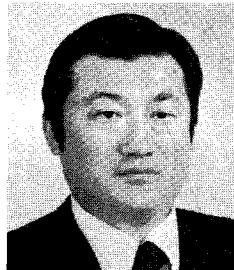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계산물의 올바른 인식과 소비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따라야 한다.

산업의 발전은 협력과 단결로 실천하는 정신자세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 신년에 들어보는 양계산업 발전론

영세성 탈피를 위한 구조조정을

정태원
홍성사료공업(주)대표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수중에 달려 있다.’

이 말은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말로서 인간에게는 온갖 가능성이 열리어 있으며 이 가운데서 인간의 자기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행위를 하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하나의 조직사회 또는 국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어려운 운명적 여건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은 반드시 풍요롭고 밝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섬유 등 일부 분야만 타결되고 최대 쟁점이었던 농산물 분야에서 타결되지 못한채 협상시한이 1~2년 연장 등이 제안됨에 따라 UR 협상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이번에 농산물 분야가 타결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다소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시간은 UR 협상이 언젠가 타결될 때에 대비한 구조조정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에 견준다면 거의 의미

가 없을 정도로 짧은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금까지는 부분적 시장개방이라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 모색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 맞이하는 1990년대는 자유화라고 하는 대변동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 난관을 유연히 대응해 갈 것인가, 즉 살아 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하튼간에 향후 UR의 타결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축산현실, 특히 양계산업 부문에서 비춰볼 때 가장 먼저 구조개선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제적